

## 페루-볼리비아-칠레 접경지역 아이마라(Aymara)원주민 문화공동체의 종족 갈등\*

차경미\*\*

###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지방분권화와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공동체
  - 2.1 라틴아메리카 지방분권화의 특징
  - 2.2 지방분권화와 원주민 문화공동체
3. 초 국경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 3.1 페루-볼리비아-칠레 접경지역 사회 문화적 특징
  - 3.2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
4. 결론

### [국문초록]

1990년대 말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은 수직적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 국경을 넘는 지역 간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주개발은행(IDB)이 지원하는 지역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Alianza Estratégica Aymaras sin Fronteras)이 전개되었다.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접경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 종족집단 중에서도 국가의 소속은 달리하지만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 속에 공통의 정체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삼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구상의 토대가 되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 cha-mi@hanmail.net

그러나 각국이 추진한 지방분권화 정책과정에서 지역경쟁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원주민 통합정책은 원주민이 현실 정치 속에서 철저한 경제적 분배의 원칙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원주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합법적 권리주장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아이마라 원주민 종족 내부에서도 고유한 집단임을 증명하기 위해 갈등하였다. 지방분권화와 접경지역 원주민 통합정책이 오히려 원주민의 종족성과 지역 구조를 더욱 약화시켰으며, 국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주제어 :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 동일 언어와 문화, 지방분권화, 전략적 동맹, 경제적 분배, 종족갈등

## 1. 들어가는 말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 각국의 경제위기는 헌정중단 위기를 초래했고 신자주의 세계화에 대한 지지기반은 상실되어 갔다. 신자유주의의 누적된 폐해 그리고 좌파정권의 확산과 같은 역사적 상황 아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적극적으로 탈 신자유주의 통합구상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어 왔다. 미주볼리바르 동맹(ALBA)은 지역동맹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며 미국 주도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대응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개도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남미국가연합(UNASUR)도 지역 내의 통합을 주도하며 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응해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아래 라틴아메리카지역 각국 정부는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 및 국지적 단계에서 자치를 확장하는 탈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다. 지역의 각국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은 수직적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 국경을 넘는 지역 간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분권화와 함께 유럽의 통합모델을 기초로 국경지역 협력 강화정책도 구상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중에서 특히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페루-볼리비

아-칠레 삼국 지방정부는 2009년 3월 아이마라(Aymara) 원주민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원주민 통합을 주도하였다. 삼국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 종족집단 중에서도 국가의 소속은 달리하지만 동일한 문화권 속에 공통의 정체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족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언어를 바탕으로 동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해온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 조건은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구상의 토대가 되었다. 삼국의 지방정부는 미주개발은행(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BID)이 지원하는 지역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Alianza Estratégica Aymaras sin Fronteras)”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원주민공동체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국제기구와 지방정부의 주도로 아이마라 원주민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전략적 동맹은 “아래로부터의 통합”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sup>1)</sup>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추진한 지방분권화 정책과정에서 지역경쟁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목표로 국제기구 지원 하에 추진된 원주민 통합 정책은 원주민이 현실 정치 속에서 철저한 경제적 분배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주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합법적 권리주장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아이마라 원주민 종족 내부에서도 구분되는 고유한 집단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90년대 말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 개혁을 위해 적극 추진된 라틴아메리카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원주민의 종족성과 지역 구조를 더욱 약화시켰으며, 국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삼국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화의 특징과 지방정부의 주도로 시도되었던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안데스지역 원주민 갈등 심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Cornago, N, Plural, “Diplomacy Decentralized: Subnational Politics and the Making of Peaceful and Durable Diplomatic Couples in Latin America”, *Academia*. 2012. 1-18면.

## 2. 지방분권화 정책과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공동체

### 2.1 라틴아메리카 지방분권화의 특징

동구권이 몰락하고 유럽연합이 팽창함에 따라 유럽은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초국가 지역연합의 실험을 지속하는 한편, 각 개별 국가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국가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앙집권적 통치형태를 토대로 한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유럽지역에서 각국은 초국가지역통합에 참여하는 동시에 지방분권화정책을 전개해 나아갔다. 지방분권화는 경제, 정치 그리고 법적 권위가 항상 복수 주체들 사이에서 유효한 경쟁 속에서 존재할 때 비로소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함께 공간적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를 고려한다.<sup>2)</sup>

유럽 각국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분권화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는 전통적인 단일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럽연합의 흐름에 발맞추어 헌법 개정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국가를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소위 지역 국가(Regional State)형태로 나아갔다. 벨기에는 오래된 국내적 분열을 관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통하여 단일 국가를 폐지하고 연방국가로 변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은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더 경쟁적인 형태로 연방주의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sup>3)</sup> 종합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유럽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경향은 근대적 국민국가체제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반성과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초국가통합을 주도하는 유럽연합

2) 한국헌법학회,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2015. 11~40면.

3) *ibid.*

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각 지역공동체의 대응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유럽의 지방분권화 추진 배경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부는 80년대 경제위기로 정부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지방분권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90년대 접어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 각국 정부는 민주주의 공고화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자율성이 낮은 지방정부의 수직적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였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다원성과 지방화라는 특징으로 부터 찾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페루를 중심으로 정치와 행정 분권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 시도 되었다.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붕괴되어 갔다. 그 결과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원주민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90년대는 형식적으로나마 자유민주주의 틀을 유지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반세계화, 신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원주민 운동이 확산되었다. 문화적 성격을 띤 저항운동으로 발전한 원주민 운동은 토착적 문화에 기반을 둔 대안적 발전 모델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계기로 전통은 또 다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sup>4)</sup>

이와 함께 198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원주민 인권을 규정한 169조항을 발표함에 따라 원주민 운동은 확산되었다. 원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대는 라틴아메리카지역 각국 정부가 다양성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sup>5)</sup>원주민운동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원주민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 원주민 운동조직은 원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자치'개념을 부각시켰다. 자치는 토지, 자원, 법 그리고 행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원주민의 자치적 공간 확보를 의미했다. 민주주

4)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 18권, 제3호, 2005. 109면.

5) Marteles, S,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n la Triple Frontera de Bolivia-Chile-Peru".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2009.175-215면.

의 공고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국가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분권화가 보다 민주적 통치형태로 인식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지역 각국 정부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sup>6)</sup>

중앙집권주의가 약화된 정치적 공간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헌법 개정 및 시도를 통해 '자치'와 '협치'에 입각한 지방분권화를 전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화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심화와 완성이 우선시되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발전을 통한 빈부격차해소, 평등한 시민 참여제공, 국가 기구의 축소 및 가장 효율적인 공공업무 처리 등 경제와 사회 조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방분권화는 전개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정치와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원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다. 양국 정부는 원주민의 전통문화 유지 발전을 통한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주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회복 그리고 공공영역에서의 기회부여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 혹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세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호의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원주민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아래 지방정부는 공공예산 확보를 위한 세입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 초등교육 등 지역민에게 제공해야하는 기초서비스 조차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약화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각 지방부처는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6) 김기현, 앞의 논문, 120면.

7) 이기우, 「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권, 2009. 91-110면.

경제적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 2.2 페루, 볼리비아, 칠레 지방분권화와 원주민 문화공동체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볼리비아는 지방분권화가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모랄레스(Evo Morales:2006-2016현재)정권의 등장과 함께 원주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가 전개되었다. 볼리비아는 다문화주의를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탈 중앙집권화를 위해 지방에 다양한 자치권을 부여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아이마라 언어그룹의 권리를 인정하였고,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적 자치권도 부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원도 다른 국가보다 활발하게 이전되었다.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 원주민 연맹과 시 협의회 조직은 전통적인 원주민 공동체 아이유(Ayllu)체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국가 정치체제에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원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라 파스(La Paz)와 오우로(Ouro) 그리고 포토시(Potisi) 3개주 연맹은 지방분권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정부는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칠레와 국경분쟁을 의식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부처 역할에 역점을 두었다. 2006년 이후 지역화를 겨냥한 개혁이 시행되어 접경지역 아이마라 문화공동체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사회와 경제적으로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모랄레스 정부는 원주민 자치지역과 언어공동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도입이었다.<sup>8)</sup>

중앙정부는 역사적 상호관계를 고려하고 지방자치 구조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행정체제를 정비하였다. 아이유 원주민 자치영토와 언어공동체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였다. 전통적인 아이유는 지방 행정조직의 토대가 되었

8) Albo X y Quispe, V, *Quiénes son Indígenas en los Gobiernos Municipales*, Ed Plural, La Paz, 2002. 140면.

다.9) 지방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 원주민 참여의 확대와 전통문화 유지에 무게를 두고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할 수 있었다.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페루의 지방분권화는 선거를 통한 지방의회 기능의 정상화로 진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후지모리(Albero Fujimori:1990-2000)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정치체제는 급격하게 중앙집권주의로 복귀되었다. 지방분권형 행정개혁은 중단되었고 시의회 기능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바탕을 둔 정치문화의 심화로 지역 엘리트들의 권위는 강화되었다.10)

2001년 출범한 톨레도(Alejandro Toledo:2001-2006)정부는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를 재추진하였다. 선거를 통해 25개 지방정부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6개의 광산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페루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원주민 공동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과 갈등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원주민 공동체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11) 지방분권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주민 종족의 이해와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해온 칠레는 90년대 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시행하였다. 특히 아이마라 원주민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치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아리카(Arica)와 발디비아(Valdivia)두 지역을 대상으로 개혁은 급속화 되었다. 전통적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의 영토인 칠레 북쪽 아리카(Arica), 타파라카(Tarapaca)와 아리카-파리나코타(Arica-Parinacota), 지역 및 페루의 탁나 그리고 볼리비아의

9) Moira Zuazo, et., al, *Descentralizacion y Democratizacion en Bolivia, La historia del Estado Debil, la Sociedad Rebelde y el Anhelado de Democracia*, (Impreso en Impresion Digital, 2012). 45-44면.

10) Tapia, J., "Descentralización, Diplomacia y Paradiplomacia en la Época de la Globalización",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 I, no.1, (Iquique de Chile:Universidad Arturo Prat, 2003). 25-32면.

11) op., cit., pp 30-47

오우로 주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등장하였다. 칠레의 노르테 그란데(Norte Grande)에 주민의 10%가 아이마라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아리카와 키케(Iquique), 타파라카와 아리카-파리나코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sup>12)</sup>

세계화의 확산과 접경지역 칠레의 푸트레(Putre), 콜차네(Colchane)와 카리키마(Cariquima)같은 주요도시에 아이마라 원주민 이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원주민의 자치권과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영화(Municipalización)과정은 탄력을 받아 진전되었다.<sup>13)</sup> 최근 십년동안 페루-볼리비아-칠레 접경지역은 아이마라 원주민 토지, 자원, 법 그리고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자치적 공간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sup>14)</sup> 삼국 접경지역 원주민은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편입 확대에 대한 세계화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한 자치 공간 확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15)</sup> 칠레 정부는 대외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체도를 조정하기 시작했다.<sup>16)</sup> 2007년 4월 정부의 아리카-파리나코타 지방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 칠레 영토로 편입된 타파라카 지역의 자율성은 확보되었다.

민간정권의 등장과 함께 원주민의 정치참여는 확대되었다. 원주민 지도자

12) Loviere L. "Un Teritorio Político Transfronterizo? Formas de Legitimación de un Experiencia de Acción Política Intermunicipal", *Revista de Estudios Transfronterizos*, No. 9, Vol 2. 2009. 13-29면.

13) Ovando C Álvarez y Alvarez G, "La Dimensión Fronteriza de la Política Exterior de Chile: Inmovilidad y Emergencia de Nuevas Dinámicas", *Revista de Estudios Transfronterizos, Nueva Época*, vol. 12, No.24, Julio-Diciembre. 2011. 75-102면.

14) 김기현, 앞의 논문, 109-122면.

15) Sergio González Miranda, *De "Atmaras en la Frontera" s "Ayamaras sin Fronteras"*. Los Gobiernos Locales de la triple-frontera andina(Perú, Bolivia y Chile) y la Globalización, *Revista Diálogo Andín*, Universidad de Tarapacá Chile. 2008. 34면.

16) Cornago, N, Plural, "Un Acercamiento al Concepto de Eurorregión: Dimensiones Funcionales y Economía Simbólica", Letamendia, F.(ed). Acción Colectiva Iparralde-Hegialde, Madrid, Fundamentos. 2006. 34-51면.

들은 전통에 기반 한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도시화와 전문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을 통제하였다. 원주민 자치단체는 국제협력 기구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경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sup>17)</sup> 지방분권화는 바첼렛(Verónica Michelle Bachelet: 2014-2016 현재) 정부 아래 확대되고 있다.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삼국의 지방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 의료, 보건과 같은 국가 사회적 서비스는 지역정부에 전가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칠레에서 추진된 시영화는 대부분의 경쟁과 권한을 시당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이었다. 지방분권화 중심 대상지역인 삼국의 접경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서 지방정부의 권위는 국가 및 세계기구의 의존을 통해 유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지역파워 엘리트들의 권력은 강화되고 권위적인 정치체제는 공고화되었다. 더욱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원주민 조직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었다. 지방분권화는 공평한 권리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종족 내부에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앙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가져야할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단 간 경계를 만들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동일 종족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3. 초 국경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 3.1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접경지역 사회 문화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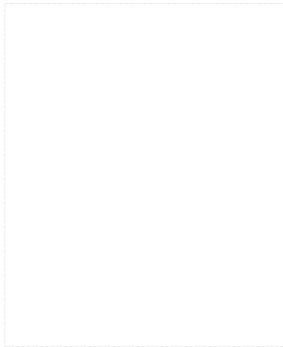
페루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안데스 산맥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주민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고 있는 안데스산맥 지역에서 케추아(Quechua)족과 아이마라(Aymara)족은 가장 대표적인 원주민 종족집단을 구성한다. 특히 해발 3600미터에 위치한 티티카카

17) Sergio Gonzáles Miranda, 앞의 논문, 37면.

(Titicaca)호수를 중심으로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은 아이마라 원주민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스페인 정복이전 알티플라노(Altiplano)를 거점으로 고대문명을 형성하며 잉카제국과 경쟁했다. 이들은 현재 볼리비아의 수도 라 파스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남쪽,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북서쪽 그리고 칠레의 중앙지역까지 연방을 건설하였다. 오늘날에도 아이마라 원주민은 이러한 국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대국가 형성이후 지역 엘리트들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분할하였으며, 그 결과 아이마라 원주민은 인위적 경계선을 통해 서로 다른 국적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간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아이마라 원주민은 동일한 언어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Pachamama)에 대한 숭배를 통해 다른 원주민 집단과 구분되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동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18)

그림 1) 라틴아메리카 아이마라원주민 분포지역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territorio+de+aymara&....>

GIUT-pjRQmHM%3A

(검색일: 2016년 6월26일)

18) Cristian Ovando Santana, Alianza Estratégica Ayamara sin Fronteras como Expresión de Diplomacia no Tradicional Chile-Boliviana en el Siglo XXI, Universidad Central de Chile. 2009. 117면.

소수 종족집단 형성 범주 논의에 있어서 페루-볼리비아-칠레 접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아이미라 원주민은 국가영역의 팽창에 따른 국경의 변화로 인해 형성된 소수 종족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식민세력들의 세력균형과 행정적 편의를 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으로 인하여 동일한 종족집단이 두 개 이상의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로서 서로 다른 국적아래 협조와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종족의 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강조한다.<sup>19)</sup>

1879년 4월 아타카마(Atacama) 사막 초석 지대를 둘러싸고 칠레와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삼국이 대립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초석 및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 영토 타라파카(Tarapacá)를 차지했다. 볼리비아의 리토랄(Litoral)과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지역도 칠레 영토로 편입되었다. 1904년 볼리비아와 칠레 양국의 협정으로 새로운 국경선이 형성되었다. 국경선은 분쟁과 갈등을 통해 변경되고 수정되었다.<sup>20)</sup>

칠레는 아리카로 부터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통해 볼리비아 영토로 진입했다.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정부가 국경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칠레가 접경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를 건설하자 페루와 칠레의 갈등은 촉발되었다. 1929년 리마협정을 통해 양국은 페루의 모케과(Moquegua)지역을 탁나(Tácna)와 아리카(Arica)로 양분하여 각각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합의 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공동허가 없이 탁나와 아리카 영토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었다. 볼리비아는 전쟁 패배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영토를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페루와 칠레간 협정에 의해 해안 진출로가 봉쇄됨에 따라 남미 유일의 내륙국가로 성장하였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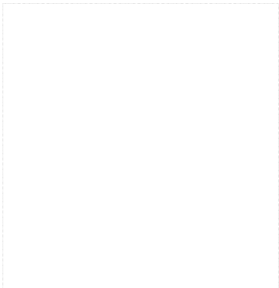
19) 박은경, 「종족성 이론의 분석」, 『문화인류학』, 19집, 1987. 9면.

20) Sergio Gonzáles Miranda op., cit. 35

21) Sergio Gonzáles Miranda, *Densidad, Integración y Conflicto en la Triple Frontera (Perú, Bolivia, Chile)* Serie Integración Social y Fronteras, Conven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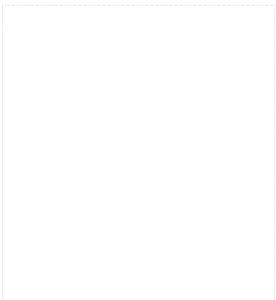
국경선 형성 이후에도 안코마르카(Ancomarka), 페루아노(Peruano), 차라냐(Charaña), 볼리비아노(Boliviano), 비스비리(Visviri) 그리고 칠레노(Chileno)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동족으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동일언어를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와 생산방식에 기초한 문화권속에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림 2) 태평양전쟁 이전 국경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territorio+de+aymara&....GIUT-pjRQmHM%3A>  
(검색일: 2016년 6월26일)

그림 3) 태평양전쟁 이후 국경변화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territorio+de+aymara&....>

GIUT-pjRQmHM%3A

(검색일: 2016년 6월26일)

1975년 볼리비아의 반세르(Hugo Banzer:1971-1978; 1997-2001)와 칠레의 피오체트(Augusto Pinochet: 1973 y 1990) 양국 군부대통령은 아리카-라 파스 철도의 개통 60년 그리고 리마협정 44년을 맞아 오랜 분쟁을 청산하고 외교 정상화를 위해 차라나에서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상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1978년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차라나 협상 실패이후 경제와 교육적으로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칠레 접경지역으로 이주하는 원주민이 증가했다.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시장 경제는 접경지역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였고 안데스지역 원주민의 공동체 이탈은 확산되었다. 인구밀도가 낮은 칠레의 접경지역은 군사정권에 의해 이주자들에게 국가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원주민에게 제공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공용어 스페인어 교육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 고유의 언어와 관습은 사라져 갔다. 국민통합 아래 추진된 ‘칠레화’ 정책은 원주민의 정체성 약화에 기여하였다. 22) 국가가 제공한 교육은 아이마라 원주민이 하나의 단일한 종족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들 내부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삼국 접경지역은 지방분권화와 반세계화 실험무대가 되었다.

### 3.2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

“민주화 과정과 동시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라틴아메리카의 공동체적 문화로 회귀하는 민족적 영토화(etno-territorialización)를 요구하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적 영토화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공동체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23)

22) *Ibid*

23) 김은중,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라틴아메리카 연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5. 32-38면.

자유민주주의 틀을 갖춘 9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반세계화를 중심으로 문화적 성격을 띤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토착적 문화에 기반을 둔 대안적 발전모델에 대한 요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원주민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여 그들의 영토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발표와 함께 원주민 영토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원주민은 ‘자치’개념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원주민의 자치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투쟁하였다.

1990년대 말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정치공동체를 구상하였다. 접경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동맹을 통해 하나의 종족통합의 공간형성이 시도되었다. 전통문화의 가치 아래 원주민 자치 공간은 지역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다양한 공동체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모색되었다.

24)

오늘날 국경지역의 분쟁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과 지역협력 형태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은 세계화에 의해 생산된 변화와 함께 양립해야 한다. 초국가 엘리트들은 정보교환과 접경지역 지방정부 동맹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킨다.<sup>25)</sup> 새로운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통합뿐만 아니라 소지역주의의, 작은 지역 국가 혹은 민족주의 국가와 같은 경향을 통해 영토의 재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며 동족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 사회문화 통합 프로젝트가 등장했다.<sup>26)</sup> 페루-볼리

24) Cornago, N, “La Descentralización Como Elemento de Innovación Diplomática: Aproximación a sus Causas Estructurales y Lógicas de Acción”, *La Política Internacional Subnacional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El Zorzal. 2010. 107-134면.

25) Tapia J, *Descentralización, Diplomacia y Paradiplomacia en la Época de la Globalización*,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 I, No, 1 INTE Universidad Arturo Prat, Iquique. 2003. 25-32면.

26) Borja J., Ciudadanía y Globalización, Revista del CLAD, Reforma y

비아-칠레 접경지역은 자유로운 공동의 문화공간이라는 지역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주도로 조화와 공존의 새로운 자치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 장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지역동맹을 통해 권위적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응하는 실험인 것이다.

2001년 안데스 지역 박람회(la Feria Regional Andina(FERAN)) 개최를 시작으로 페루, 칠레, 볼리비아 접경지역 지방정부 대표들은 칠레 푸트레(Pture)에서 회합하여 접경지역 56개시를 대상으로 통합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였다. 칠레 시 정부는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지방도시협의회(la Asociación de Municipios Rurales)를 형성하고, 볼리비아에서 조직된 라 파스와 오우로 시협의회(la Asociación de Municipalidades de la Paz y de Ouro) 그리고 페루의 타나 지방시협의회(la Asociación de Municipalidades Rurales de Tánca)의 공조로 국경 없는 아이마라 전략적 동맹에 동참하였다. 2006년 원주민 공동체의 초국가적 통합 공간을 통한 권력분립은 볼리비아 서쪽 접경지역의 25개 중소도시, 페루 남쪽의 14개 도시 그리고 칠레 북쪽 아리카주의 중소 도시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sup>27)</sup>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삼국이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51개의 아이마라 원주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및 다양한 NGO의 지원으로 시도되었다.<sup>28)</sup> 이 프로젝트는 소지역 통합의 특수한 사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이마라 원주민 사회의 자본과 자원 그리고 전통문화를 토대로 지역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지역문화공동체 통합은 전개되었다. 전략적 동맹은 ‘아래로부터 통합’이라는 국경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페루-볼리비아-칠레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은 동일 언어 사용을 통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자치 공간 확보를 모색하며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경향은 칠레에

Democracia, No 22, Caracas febrero. 2002. 109면.

27) González Miranda, 앞의 논문. 38면.

28) Cristian Ovando Santana, 앞의 논문. 117면.

서 가장 두드러졌다. 칠레는 지방분권화를 공공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전략적 동맹에 적극 동참하였다.<sup>29)</sup>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 프로젝트는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페루의 탁나와 푸노, 볼리비아의 라 파스, 오우로, 포토시 그리고 칠레의 아리카와, 파리나코타(Parinacota) 및 타라파카(Tarapacá)주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취약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미주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공동체 통합은 진행되었다.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 프로젝트는 원주민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영토적 논리에 따라 공용정책을 포함하는 지역경제 발전, 환경, 교육 그리고 지방정부 통상 등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문화 언어정책, 교육과 보건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공동으로 모색한 시도였다.

그러나 통합정책은 실제로 원주민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의 주도로 시도된 원주민통합정책은 원주민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정책적 수단이었다. 원주민과 공동체는 일정부분 물질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신자유주의 확산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원주민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족의 정체성은 자신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활용되었다. 삼국접경지역 아이마라 공동체의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된 협력통합 프로젝트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적 부재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리고 토지 사용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간의 공동협력의 부재는 오히려 원주민 종족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방식의 단절은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에 주력한 원주민의 공동체 이탈을 가속화했다.

29) José Luis, "Rhi-saushi,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 los Procesos de Descentralización y Globalización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La Experiencia Italia-Región de Atacama", *Revista OLDLES*, vol., I, No 3. 2008. 210면.

새로운 공간에서 원주민은 새로운 정체성을 건설 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이 세계화의 습격으로 영토는 사라져 가고 문화와 영토를 공유하고 있는 전통 공동체는 단지 현실만을 건설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새로운 변화 앞에 주어지는 기회는 결코 지역 원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통합 및 경제발전 프로젝트는 원주민을 시장경제로 편입하고 있다.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에게 이전되지 않는 부가 아이마라 원주민이 국가로부터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과 행동모색에 기반이 되고 있다.<sup>30)</sup>

아이마라 주민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자본을 고려한 초 국경 경제개발 전략의 부재는 오히려 이전과 다른 의미의 종족주의를 등장시키고 있다. 새로운 헌법을 통해 도입된 분권화 정책은 종족성과 지역 구조를 오히려 약화시키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협력과 동맹을 통한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 프로젝트는 원주민 토지 개발을 위한 국가의 필요한 전략이었다.

#### 4. 결론

1990년대 말 라틴아메리카 지역 각국 정부는 중앙집권주의가 약화된 정치적 공간에서 적극적인 헌법 개정 및 시도를 통해 '자치'와 '협치'에 입각한 지방분권화를 전개하였다. 지방분권화는 특히 원주민의 경제와 사회 조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페루-볼리비아-칠레 접경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은 새로운 문화정치 공동체 형성을 시도하였다. 접경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지역통합을 통해 접경지역을 하나의 자치공간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였다.

---

30) Graña F, *La Identidad Fronterizas:Contesto y Definición, Percepción*, No5, Taller de Investigaciones Culturales(TINCU), Arica, 2001. 77-86면.

그러나 지방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 의료, 보건과 같은 국가 사회적 서비스는 지역정부에 전가되었다.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원주민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아래 지방정부는 공공예산 확보를 위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함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각국이 추진한 지방분권화 정책과정에서 지역경쟁은 강화되었다. 각 지방부처는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분권화는 공평한 권리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종족 내부에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원주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합법적 권리주장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오히려 종족성과 지역 구조를 약화시며 이전과 다른 의미의 종족주의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과워 엘리트들의 권력은 강화되고 권위적인 정치체제는 공고화되었다. 더욱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원주민 조직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었다.

[ABSTRACT]

Study on Ethnic Conflicts of Aymara Native Cultural Community in  
Peru-Bolivia-Chile Border Area

Cha, Kyung Mi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In late 1990s, each government of Latin America tried reformation of vertical national power structure which had low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roug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decentralization was promoted as a plan to exten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utonom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regional competition beyond the border. In this process, "Borderless Strategic Alliance of Aymara Native(Alianza Estratégica Aymaras sin Fronteras) was promoted with the lead of local government,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regional public welfare program supported by the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IDB).

Aymara native, which is concentratively distributed through the border areas of Peru-Bolivia-Chile can be said to be the tribe that has a high possibility to aim for the common identity in the same cultural area, nevertheless the affiliation of country differs among the other native races of Latin America. Such condition became a basis of the concept of a new community based on the border area of the above three countries.

However, regional competition was reinforced in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each country. Also, native unification policy promoted with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as understood by the natives as the principle of thorough economic distribution in the realistic politics, and the natives utilized their identity as a means for legal claim of right to receive more economic support. As the result, conflicts occurred also in Aymara native tribe to verify their legitimacy. Accordingly, decentralization and unification policy of border area natives rather weakened the tribe characteristic and regional structure, intensify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Key word: decentralization, border area, Aymara native, same language and culture, strategic alliance, economic distribution, racial conflicts

## 참고문헌

-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 18권, 제3호, 2005. 109면.
- 김명석, 「작가주의로 포장된 무협장르의 변용」, 『국제언어문학』 제33호, 2016.04
- 김은중,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라틴아메리카 연구』, 2003. 67-68면.
- 박은경, 「종족성 이론의 분석」, 『문화인류학』, 19집, 1987. 9면.
- 한국헌법학회,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2015. 11-40면.
- 이기우, 「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권, 2009. 91-110면.
- Albo X y Quispe, V, *Quiénes son Indígenas en los Gobiernos Municipales*, Ed Plural, La Paz, 2002. 140면
- Borja J., Ciudadanía y Globalización, Revista del CLAD, Reforma y Democracia, No 22, Caracas febrero. 2002. 109면.
- Cornago, N, Plural, “Un Acercamiento al Concepto de Euroregión: Dimensiones Funcionales y Economía Simbólica”, Letamendia, F.(ed). Acción Colectiva Iparralde-Hegialde, Madrid, Fundamentos. 2006. 34-51면.
- \_\_\_\_\_, “Diplomacy Decentralized: Subnational Polities and the Making of Peaceful and Durable Diplomatic Couples in Latin America”, Academia. 2012. 1-18면.
- \_\_\_\_\_, “La Descentralización Como Elemento de Innovación Diplomática:Aproximación a sus Causas Estructurales y Lógicas de Acción”, *La Política Internacional Subnacional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El Zorzal. 2010. 107-134면.
- Cristian Ovando Santana, Alianza Estratégica Ayamara sin Fronteras como Expresión de Diplomacia no Tradicional Chile-Boliviana en el Siglo XXI., Universidad Central de Chile. 2009. 109면.
- González Miranda, De "Aymaras en la Frontera a Aymaras sin Frontera. Los Gobiernos Locales de la Triple-Frontera Andina (Perú, Bolivia y Chile) y la Globalización”, *Diálogo Andino-Revista de Historia, Geografía y Cultura Andina*, (Chile: Universidad de Tarapacá). 2008. 38면
- Graña F, *La Identidad Fronterizas: Contesto y Definición, Percepción*, No 5, Taller de Investigaciones Culturales(TINCU), Arica, 2001. 77-86면.

- José Luis, "Rhi-saushi,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 los Procesos de Descentralización y Globalización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La Experiencia Italia-Región de Atacama", *Revista OLDLES*, vol., I, No 3. 2008. 210면.
- Loviere L. "Un Teritorio Político Transfronterizo? Formas de Legitimación de un Experiencia de Acción Política Intermunicipal", *Revista de Estudios Transfronterizos*, No. 9, Vol 2. 2009. 13-29면.
- Marteles, S,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n la Triple Frontera de Bolivia-Chile-Peru". *Cooperación Transfronteriza e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2009. 175-215면.
- Moira Zuazo, et., al, *Descentralización y Democratización en Bolivia, La historia del Estado Débil, la Sociedad Rebelde y el Anhelado de Democracia*, (Impreso en Impresión Digital, 2012). 45-44면.
- Ovando C Álvarez y Alvarez G, "La Dimensión Fronteriza de la Política Exterior de Chile: Inmovilidad y Emergencia de Nuevas Dinámicas", *Revista de Estudios Transfronterizos, Nueva Época*, vol. 12, No.24, Julio-Diciembre. 2011. 75-102면.
- Sergio Gonzáles Miranda, *Densidad, Integración y Conflicto en la Triple Frontera(Perú, Bolivia, Chile) serie Integación Social y Fronteras*. Convenio Andrés Bello Bogotá Colombia. 2006. 33면.
- \_\_\_\_\_, "Los Gobiernos Locales de la Triple-Frontera Andina(Perú), Bolivia y Chile) y la Globalización", *Revista Diálogo Andin*, Universidad de Tarapacá Chile. 2008. 34면.
- Tapia, J., "Descentralización, Diplomacia y Paradiplomacia en la Época de la Globalización",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 I, no.1, (Iquique de Chile:Universidad Arturo Prat, 2003). 25-32면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

